



*사진 출처 : 안양감리교회

numbers

vol. 348 | 2026.9.1.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3. **소울 페어런트(Soul Parent):** 교사 교사, 격려보다는 ‘체계적 교육’과 ‘사역 피드백’ 원해!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 100세 이상 고령자 실태
2. Z세대의 인간관계 트렌드: 프렌드플레이션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교사, 격려보다는 ‘체계적 교육’과 ‘사역 피드백’ 원해!

교회학교 교사는 단순한 교육 담당자가 아니다. 학생들의 신앙 여정을 곁에서 지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영적 부모, 곧 ‘소울 페어런트’(Soul-Parent)이다. (사)꿈이 있는 미래와 목회데이터연구소가 공동 출간한 ‘2026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에 따르면 교회학교 교사들은 다음세대에 대한 사랑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사역을 시작(40%)·헌신하고 있으나, ‘학생 관리’ 및 ‘교수 능력’ 등 실무 영역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회가 제공하는 지원과 현장 교사가 필요로 하는 지원 사이에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했다.

교사로서 요구되는 역량은 많은데, 이것을 교사 개인의 사명감과 헌신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이번 <넘버즈 348호>에서는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세번째로 영적 부모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조명하고, 교회가 교회학교 교사를 강력한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 어떤 교육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는 가톨릭으로 기재합니다.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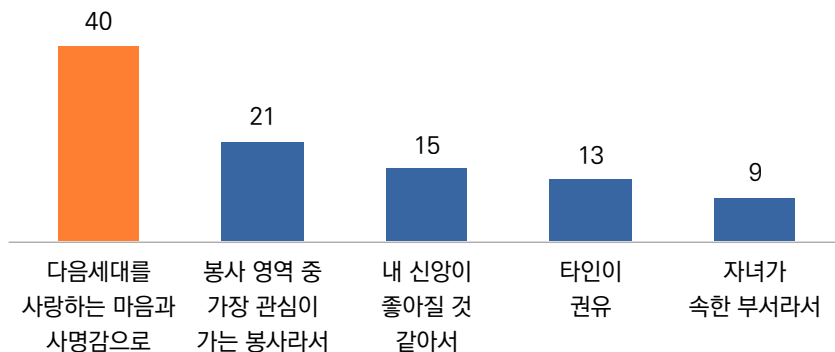
조사개요

구분	내 용				
	일반 학생	학부모	담임목사	사역자	교사
조사 대상	만 14세~19세 개신교인 학생 (교회 출석 학생)	만 14~19세 자녀를 둔 개신교인 부모 (교회 출석자)	교회학교 부서가 있는 한국교회 담임목사	한국교회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 (사역자)	한국교회 교회학교 담당 교사
표본 규모	총 500명 (유효표본)	총 600명 (유효표본)	총 500명 (유효표본)	총 300명 (유효표본)	총 435명 (유효표본)
표본 추출	지역/성/학급별 비례할당 추출 (자녀기준)* 비례할당 추출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 원’에서 발간한 2025년 교육통계연보 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추출함.		편의추출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 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 서 ±4.4%p	무작위추출을 전 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 서 ±4.0%p	-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온라인 조사(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발송)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6년 01월 22일~02월 06일			2026년 01월 22일~02월 02일	2026년 01월 19일~02월 28일
조사 의뢰 기관	(사)꿈이 있는 미래(꿈미) /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교회학교 교사 사역 동기 1위, '다음세대에 대한 사명감'!

- 교회학교 교사 사역 동기에 관해 물은 결과, 교사들은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과 사명감으로'(40%)를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봉사 영역 중 가장 관심이 가는 봉사라서'(21%), '내 신앙이 좋아질 것 같아서'(15%) 등의 순이었다.
- 교사들의 사역 기반에는 다음세대를 향한 사랑과 영적 소명의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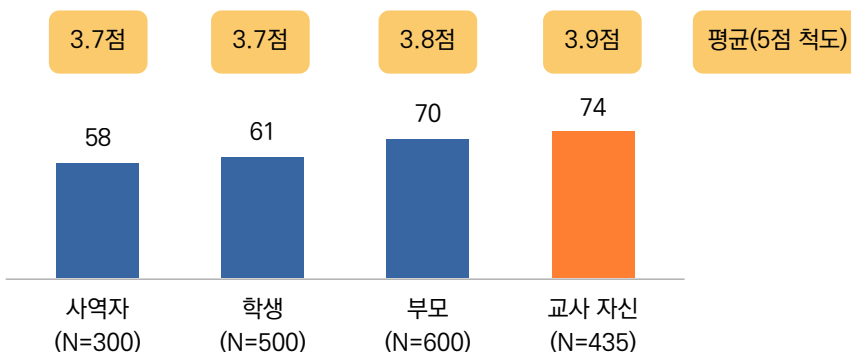
[그림] 교사 사역 동기 (교사, 상위 5개, N=435, %)



교사 만족도, 교사 자신은 74% vs 사역자 평가는 58%

- 사역자, 학생, 부모, 교사 본인 대상으로 교회학교 교사 사역 만족도(매우+약간 만족)를 물은 결과, 교사 자신의 만족도가 7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부모(70%), 학생(61%), 사역자(58%) 순이었다. 특히 교사 본인과 사역자의 만족도에는 16%p의 차이가 나타나, 교사 스스로의 평가와 그들을 지도하는 사역자 평가 사이에 다소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교사 만족도는 전 그룹에서 5점 만점 평균 3.7점~3.9점 분포로, 대체로 보통 수준의 수치를 보였다.

[그림] 교사에 대한 만족도 ('매우+약간 만족'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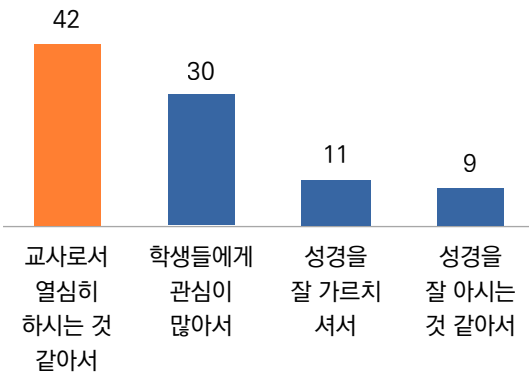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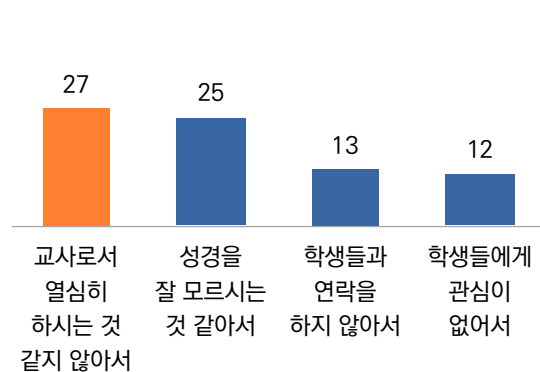
학생의 교사 만족·불만족을 좌우하는 1위 요인, ‘교사의 열정’!

- 교사 만족 요인을 교회학교 교사에 만족하는 교회 출석 중고생에게 묻은 결과, ‘교사로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42%)와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아서’(30%)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 반면 교사 불만족 요인(교사에 불만족하는 교회 출석 중고생 대상)으로는 ‘교사로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서’(27%)와 ‘성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25%)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결국 교사 만족과 불만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교사의 열정’, ‘학생을 향한 관심’으로 압축할 수 있겠다.

[그림] 교사 만족 요인 (교회학교 교사 만족하는 교회 출석 중고생, 상위 4개, N=306, %)



[그림] 교사 불만족 요인 (교회학교 교사 불만족하는 교회 출석 중고생, 상위 4개, N=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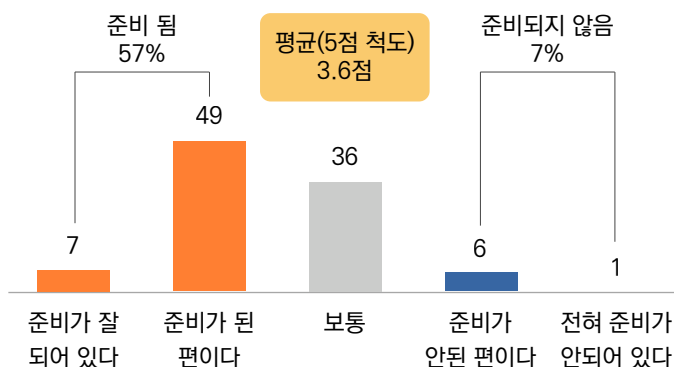
02

[교사 역량]

교사 절반 정도만 ‘교사로서 전문성 갖췄다’고 평가

- 사역 동기를 통해 교사들의 사명감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교사들의 실제 사역 전문성 수준은 어떨까? ‘교사 전문성 자기 평가’ 결과, 교회학교 교사의 57%인 절반 남짓이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했고, 5점 만점 기준 평균 3.6점이었다.

[그림] 교사 전문성 자기 평가 (교사, N=4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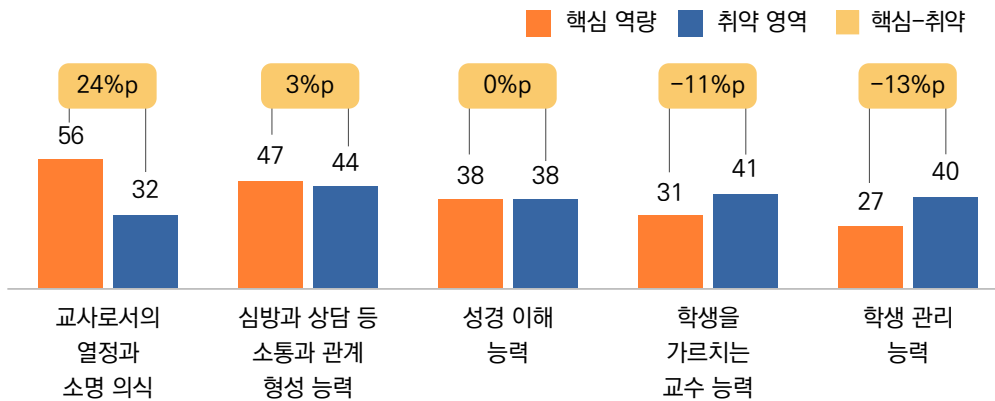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필요도 대비 가장 취약한 교사 역량, ‘학생 관리’와 ‘교수 능력’!

- 교회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1+2순위)으로는 ‘열정과 소명 의식’(56%)이 1위로 꼽혔으며, 이어 ‘소통/관계 형성 능력’(47%), ‘성경 이해 능력’(38%) 등의 순이었다.
- 반면 교사 본인이 취약하다고 느끼는 역량은 ‘소통/관계 형성 능력’(44%), ‘교수 능력’(41%), ‘학생 관리 능력’(40%) 순이었다.
- 특히 핵심 역량 대비 취약 역량의 격차를 살펴보면 ‘학생 관리 능력’(-13%p)과 ‘교수 능력’(-11%p)에서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다. 이는 교사 대상 실질적인 학생 관리 및 수업 진행 스킬을 보완해 주는 교회의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교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 vs 본인의 취약 영역 (교사, 1+2순위, 상위 5개, N=4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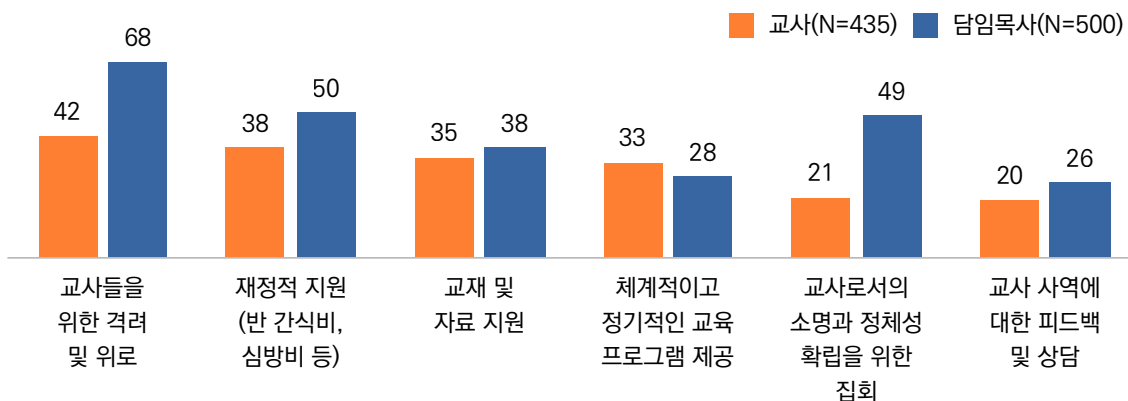
03

[교회의 교사 지원]

교회의 교사 지원, 목회자와 현장 교사 간 체감 온도 차 크다!

-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회가 현재 어떤 지원을 제공하는지를 묻은 결과, 교사, 담임목사 모두 ‘교사를 위한 격려/위로’와 ‘재정적 지원’을 상위 1,2위로 꼽았다.
- 그러나 지원에 대한 체감 온도 차는 뚜렷했다. 대표적으로 ‘격려 및 위로’의 경우 담임목사는 68%가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실제 교사의 체감 비율은 42%에 그쳤다.
- ‘소명/정체성 확립 집회’ 역시 담임목사 49%에 비해 교사(21%)의 응답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교회가 제공하는 지원과 교사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사이의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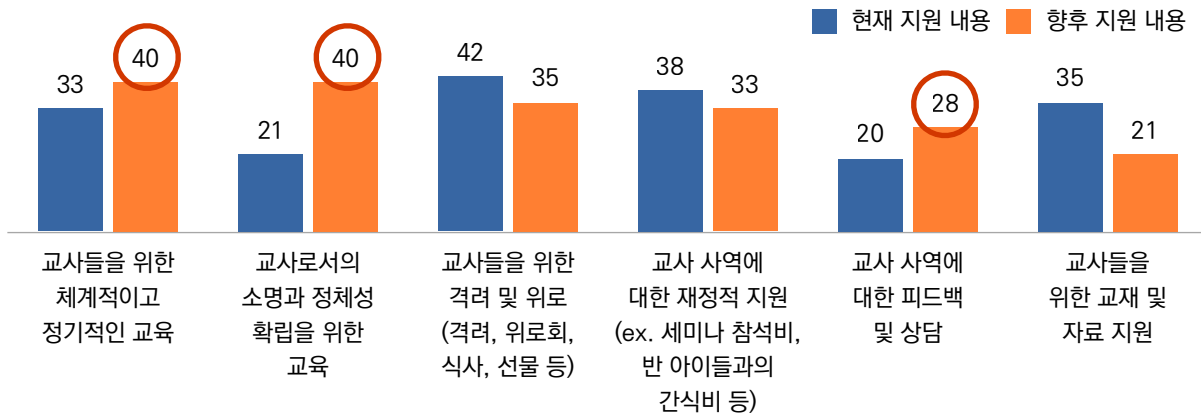
[그림] 현재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회의 지원 내용 (중복응답, 상위 6개, %)



교사, 격려보다는 ‘체계적 교육’과 ‘사역 피드백’ 원해!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현재 교회의 지원과 향후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비교한 결과, 현재는 ‘격려/위로’(4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교사들이 향후 강화를 원하는 지원 항목은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40%), ‘교사로서 소명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40%)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교사 사역에 대한 피드백’ 요구(28%)도 현재 지원(20%)보다 필요도가 크게 높았다.
- 이는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회가 일회성 이벤트나 재정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교육과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림]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재 교회의 지원 내용 vs 향후 강화해야 할 지원 내용 (교사, 중복응답, 상위 6개, N=4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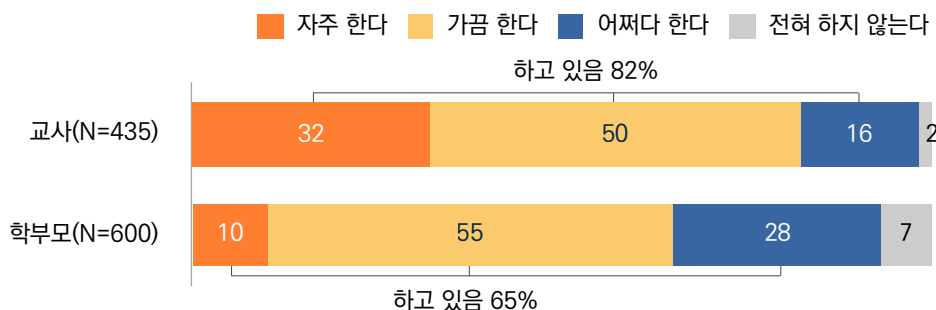
04

[가정-교회학교 교사 소통과 사역 지속성]

교사-학부모 간 소통 인식 차, 교사 82% vs 학부모 65%가 ‘소통한다’!

- 교사와의 소통 수준에 대해 양 집단(교사 본인, 학부모)에게 각각 묻은 결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교사는 82%에 달한 반면 부모는 65%에 그쳐 17%p의 인식 격차를 보였다.
- 특히 적극적 소통을 의미하는 ‘자주 한다’는 응답은 교사(32%)가 부모(10%)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학부모와의 소통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학부모가 체감하는 소통의 빈도와 깊이는 이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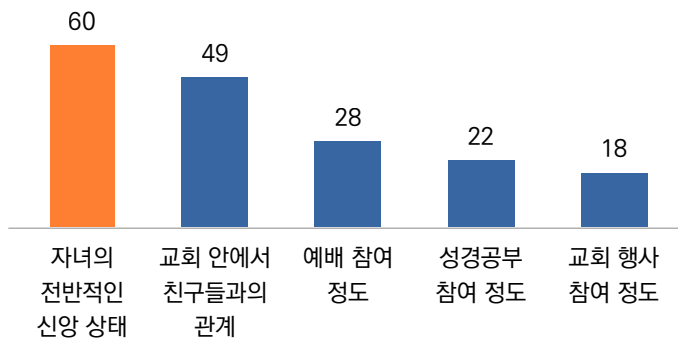
[그림] 교사-학부모 간 소통 수준 (%)



부모, 교사와 ‘자녀의 전반적 신앙 상태’에 대해 소통 원해!

- 교회학교 학부모가 교사와 가장 소통하고 싶어 하는 내용(1+2순위)은 ‘자녀의 전반적인 신앙 상태’(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49%)가 뒤를 이어, 단순 출석 여부나 행사 참여 정보보다는 자녀의 신앙적·관계적 삶에 대한 깊이 있는 공유를 희망하고 있었다.
- 이는 교회학교 교사가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학부모와 자녀의 신앙 상태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신앙적 조연자’로서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을 부여주고 있다.

[그림] 교사와 소통 희망 내용 (부모, 1+2순위, 상위 5개, N=6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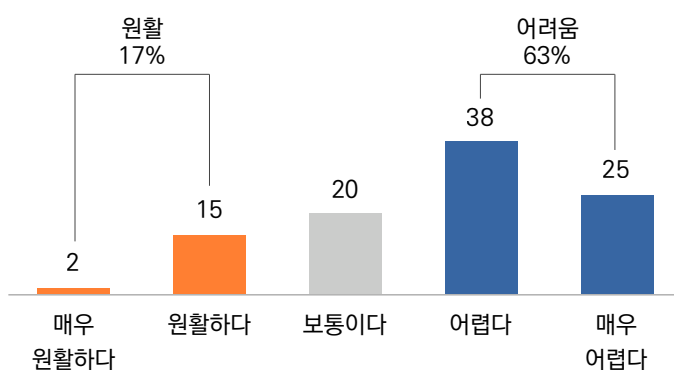
05

[기타]

사역자 3명 중 2명 가까이, 교사학교 교사 총원 어렵다!

- 교회학교 신규 교사 수급이 원활한지를 사역자들에게 묻은 결과, ‘어렵다’(63%)는 응답이 ‘원활하다’(17%)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현장 사역자 3명 중 2명 가량(63%)은 교사를 새롭게 총원하는 데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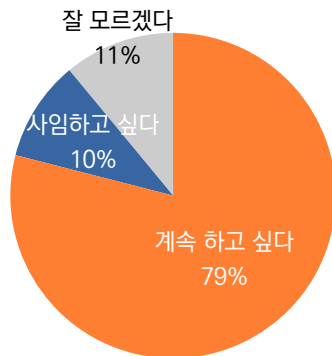
[그림] 교사 총원 원활성 (사역자, N=3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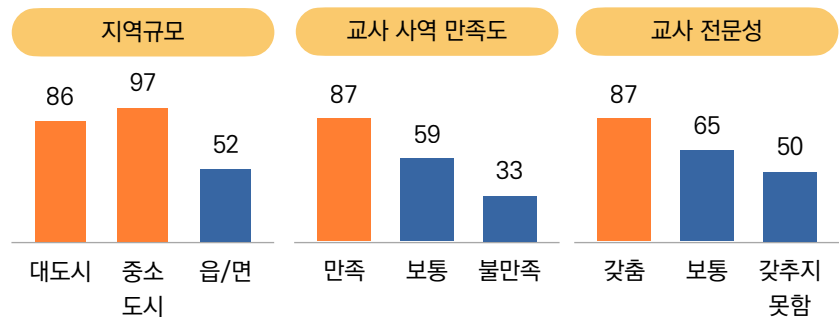
교사 10명 중 8명, '사역 계속 하고 싶다'!

- 교사를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교사 10명 중 8명(79%)이 '계속 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사임하고 싶다'는 10%에 그쳤다.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규모가 '중소도시' 이상(중소도시 91%, 대도시 86%)인 경우, 교사 사역 만족도가 높을수록(만족 87%, 불만족 33%) 지속 의향이 확연히 높았다. 또한 스스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느낄수록(갓춤 87%, 갖추지 못함 50%) 교사 직분을 이어가려는 경향이 강해, 교사의 사역 만족도 제고와 전문성 강화 교육이 교사 수급 안정화의 핵심 열쇠임을 보여준다.

[그림] 교사 지속 의향 (교사, N=435)



[그림] 응답자 특성별 교사 '계속 하고 싶다' 비율 (교사, N=435, %)



이번호 요약

1. 필요도 대비 가장 취약한 교사 역량, '학생 관리'와 '교수 능력'!

교사의 핵심 역량 대비 취약 역량의 격차를 살펴보면 '학생 관리 능력'(-13%p)과 '교수 능력'(-11%p)에서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다.

2. 교사, 격려보다는 '체계적 교육'과 '사역 피드백' 원해!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현재 교회의 지원은 '격려/위로'(42%)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향후 강화를 원하는 지원 항목은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40%)과 '교사로서 소명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40%)이 공동 1 위였다. 또한, '교사 사역에 대한 피드백'(28%) 항목도 현재(20%) 대비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3. 부모, 교사와 '자녀의 전반적 신앙 상태'에 대해 소통 원해!

교회학교 학부모가 교사와 가장 소통하고 싶어하는 내용(1+2순위)은 '자녀의 전반적인 신앙 상태'(60%)로 조사됐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교사 베이직 (생명의말씀사, 이정현 저)

관련 성경 구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목회 적용점

교회학교 현장의 요구는 명확하다. 교사들은 단순한 위로와 격려를 넘어 교사로서의 실질적 역량을 키워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갈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현장 교사들의 역량 격차(필요-취약 역량)를 보완하고, 부모와 사역자가 함께 다음세대를 세우는 동역 구조를 마련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에 다음의 두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 관리'(-13%p)와 '교수 능력'(-11%p)에서 필요도 대비 가장 큰 한계를 느끼며, 현재의 '격려/위로'(42%) 중심 지원보다 '체계적·정기적 교육'과 '사역 피드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회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 실질적 교수법과 학생 관리법을 다루는 교육을 정례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사역 피드백 제공을 통해 교사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점검하고 성장을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교사-사역자-부모를 하나로 묶는 원활한 소통 채널을 다각도로 구축해야 한다. 학부모의 60%는 자녀의 전반적인 신앙 상태에 대해 교사와 깊이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다. 주일 하루에 머무는 교육을 넘어, 가정(부모)과 교회(사역자, 교사)가 자녀의 영적 상태를 상시 공유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삼겹줄 소통 구조'가 필수적이다. 교사와 부모가 사역자의 지원 아래 긴밀히 협력할 때, 다음세대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강력한 영적 울타리가 완성될 것이다.

1. 한국 100세 이상 고령자 실태



2. Z세대의 인간관계 트렌드: 프렌드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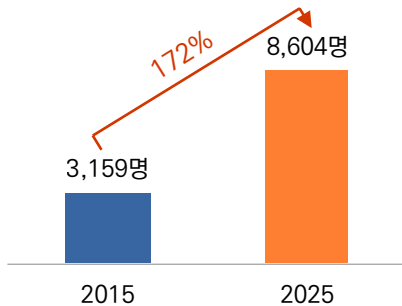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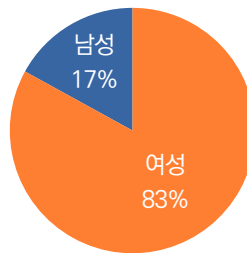
한국, 100세 이상 고령자 지난 10년사이 172% 증가

- 한국은 2024년 12월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중에서도 말그대로 초고령인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 결과’를 최근 국가데이터처(전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 이중 주요 결과를 살펴본다.
- 국내 100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2015년 3,159명에서 2025년 8,604명으로 10년간 172%로 크게 증가했다.
-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 고령자가 83%로, 남성 고령자(17%)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림] 100세 이상 고령자 인구 수 추이



[그림] 100세 이상 고령자 인구 성별 분포 (2025)



※출처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 결과, 2026.08.20.

100세 이상 고령자, ‘경기 고양시’ 최대!

- 시군구별 100세 이상 고령자 수는 ‘경기 고양시’가 1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용인시’(169명), ‘경기 수원시’(152명) 등의 순이었다. 절대 인구 최대 지역은 주로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 반면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전남 고흥군’이 91.8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경북 영양군’(89.6명), ‘경북 봉화군’(86.8명), ‘경남 하동군’(78.8명) 순으로 나타나 지방 군 단위 농어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 고령자 절대 수는 인구 규모가 큰 수도권 대도시가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인구 대비 비중은 고령화율이 높은 군 지역이 상위 10위를 차지해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표] 시군구별 100세 이상 고령자 (2025, 상위 10개, 명)

순 위	시도 및 시군구	인 구	순 위	시도 및 시군구	10만 명당
1	경기 고양시	188	1	전남 고흥군	91.8
2	경기 용인시	169	2	경북 영양군	89.6
3	경기 수원시	152	3	경북 봉화군	86.8
4	경기 남양주시	142	4	경남 하동군	78.8
5	제주 제주시	132	5	경남 산청군	77.7
6	경기 성남시	131	6	전남 함평군	77.0
7	경기 부천시	124	7	강원 화천군	75.5
8	충북 청주시	114	8	전남 곡성군	71.1
9	경기 안산시	100	9	충남 부여군	69.6
10	인천 서구*	96	10	경남 남해군	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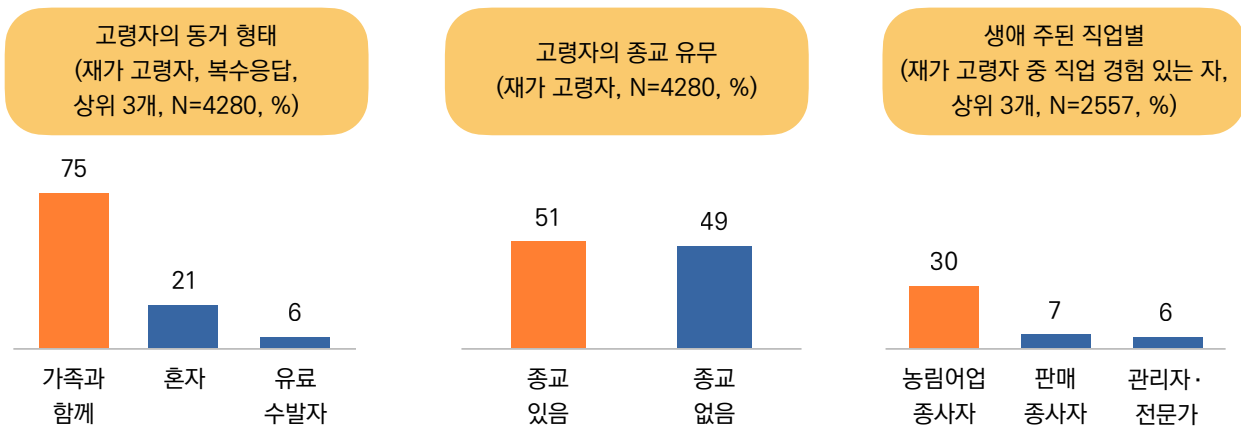
※출처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 결과, 2026.08.20.

*인천 서구는 2026년 7월부터 서해구(변경), 검단구(추가 신설)로 변경됨

100세 이상 재가 고령자 4명 중 3명(75%), ‘가족과 생활’!

- 100세 이상 재가 고령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동거 형태는 재가 고령자의 75%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혼자 사는 독거’ 비율은 21%였다.
- 종교 유무를 보면 ‘종교 있음’이 51%, ‘종교 없음’이 49%로 유종교자와 무종교자의 비중이 비등하게 나타났다.
- 직업 경험이 있는 고령자 기준, 생애 주된 직업이 무엇인지 묻은 결과, ‘농림어업 종사자’가 3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판매 종사자’(7%), ‘관리자·전문가’(6%) 순이었다.

[그림] 100세 이상 고령자 특성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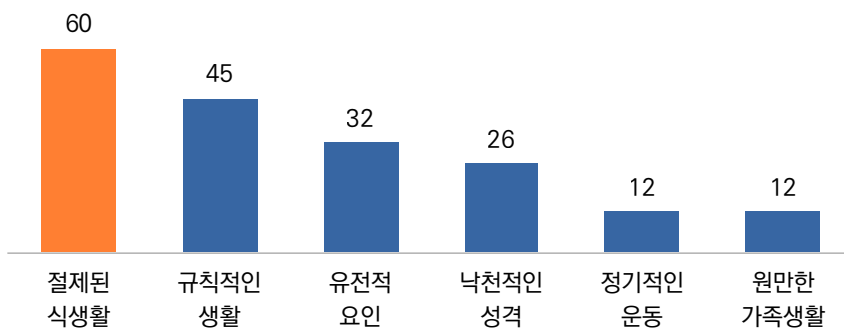


※출처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 결과, 2026.08.20.

100세 이상 고령자가 꿈은 장수 비결 1위, ‘절제된 식생활’(60%)!

- 100세 이상 재가 고령자가 생각하는 장수 비결(복수응답)로 ‘절제된 식생활’(60%)이 가장 높게 꼽혔으며, 이어 ‘규칙적인 생활’(45%), ‘유전적 요인’(32%), ‘낙천적 성격’(26%) 등의 순이었다.

[그림] 100세 이상 고령자가 생각하는 장수 비결 (2025, 재가 고령자, 복수응답, 상위 6개, N=4280, %)



※출처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 결과, 2026.0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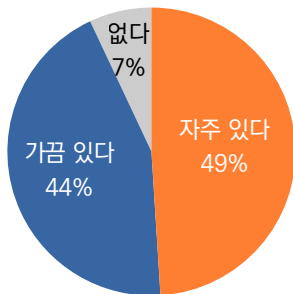


Z세대, '물가가 올라 친구와의 만남 비용이 부담스러운 적 있었다' 93%!

- 프렌드플레이션이란 용어가 요즘 기사 곳곳에서 눈에 띈다. 프렌드플레이션(Friendflation)은 'Friend(친구)'와 'Inflation(물가 상승)'을 합친 신조어로, 치솟는 물가 때문에 친구와의 만남이나 모임을 줄이는 현상을 뜻한다. 최근 Z세대(16~31세)를 대상으로 한 프렌드플레이션 관련 조사 결과(알바천국)가 발표돼 이를 살펴본다.
- 먼저 '물가가 올라 친구와의 만남이나 모임 비용이 부담스러운 적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Z세대 응답자의 93%인 대다수가 '그렇다(있다)'고 응답했으며, '자주 있다'는 응답이 절반가량(49%)을 차지했다.

[그림] 인플레이션에 따른 만남/모임 부담 경험 여부 (2026, Z세대(만 16~31세), N=601)

물가가 올라 친구와의 만남이나
모임 비용이 부담스러운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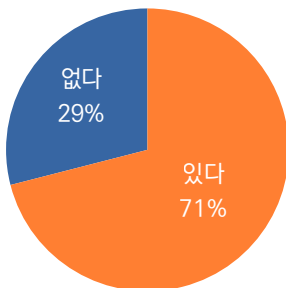


※출처 : 알바천국 보도자료, 알바천국, Z세대 10명 중 7명 "최근 1년간 친구 만남 지출 줄여", 2026.07.
(<https://corp.alba.co.kr/brand/MediaReportView.asp?idx=3890&pag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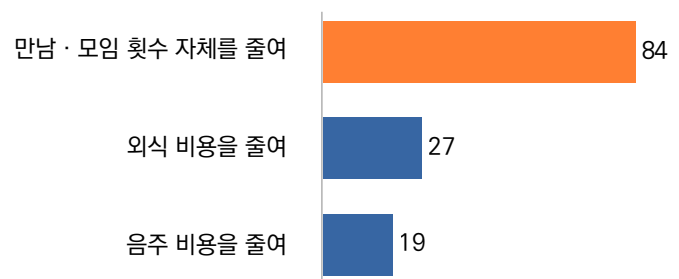
Z세대 10명 중 7명, '최근 1년간 친구와의 만남 관련 지출 줄였다'!

- 최근 1년간 친구와의 만남이나 모임 관련 지출을 줄인 경험이 있는 비율도 71%로, Z세대 10명 중 7명꼴이었는데, 이들이 비용을 줄이는 방식(복수응답)으로는 '만남 · 모임 횟수 자체를 줄인다'(84%)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최근 1년간 친구 만남·모임 지출 줄인 경험 여부
(2026, Z세대(만 16~31세), N=601)



[그림] 친구 만남·모임 비용을 줄이는 방식 (2026, '지출 줄인 경험 있다'고 응답한 Z세대, 상위 3개, 복수응답, N=427, %)



※출처 : 알바천국 보도자료, 알바천국, Z세대 10명 중 7명 "최근 1년간 친구 만남 지출 줄여", 2026.07.
(<https://corp.alba.co.kr/brand/MediaReportView.asp?idx=3890&page=1>)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73호 \(2026년 8월 4주\)](#)

- 전작권 환수, 북한 전쟁 도발 위험성, 남북한 군사력, 핵무기 보유, 3군 사관학교 통합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87호 \(2026년 8월 4주\)](#)

- 국정운영 평가, 정당지지도, 8.13 부동산 대책 효과 기대감

사회 일반

[커지는 소득공백 우려...60~64세 56%가 '연금 0원'](#)

중앙일보_2026.8.26.

[\[단독\]공기만 마시고 살아도...서울서 내집 마련 12년 5개월 걸린다](#)

조선일보_2026.8.27.

[읍면 지역 여성 58% '결혼 생각없다'... 수도권은 42%](#)

한겨레_2026.8.27.

["35세 넘어 아이 낳는 여성 늘었다"...30대 후반 출산을 역대 최고](#)

매일경제_2026.8.26.

["애 생겨도 혼인신고 안 해요"...비혼 출산 '역대 최대' 찍었다](#)

중앙일보_2026.8.31.

['요즘 축의금 얼마하세요?'...적정액 기혼 29만원 VS 미혼 13만원](#)

문화일보_2026.8.27.

[\[그래픽\] 중독 환자 현황](#)

연합뉴스_2026.8.26.

["여보,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말래"...벼랑 끝 몰린 40대 후반, 비상이라는데](#)

서울경제_2026.8.26.

["죽여버릴 거야" 업무 시간 절반을 화난 사람과 보내는 '이 직업'](#)

한국일보_2026.8.21.

[\[2026 가족인식조사\] 정상가족에 대한 인식](#)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6.8.25.

아동 · 청소년 · 청년

["학교 끝" 들뜨는 시간에...학교 앞 어린이 사망사고 최다](#)

중앙일보_2026.8.26.

[약물 등 중독으로 응급실 간 10·20대 10년새 2배 증가](#)

연합뉴스_2026.8.26.

[청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취업 상태별 현격 차이](#)

연합뉴스_2026.8.23.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내년부터 결혼하면 100만원·출산하면 최대 2천만원... 청년 지원 확대](#)

여성신문_2026.8.30.

노인

["전체 노인 중 24%가 통합돌봄 대상...지역별 수요격차 2.2배"](#)

연합뉴스_2026.8.26.

[고령층, 기온 1.5℃만 올라도 청년 4℃ ↑ 보다 체온조절 못해](#)

데이터숨_2026.8.25.

경제 · 기업

[물가 못 따라가는 월급...근로자 실질임금 석달 연속 감소](#)

연합뉴스_2026.8.27.

[\[그래픽\] 노인 연금 수급 현황](#)

연합뉴스_2026.8.25.

국제 · 환경

[한국인 반미정서 처음으로 50% 넘었다...美 퓨리서치 조사](#)

연합뉴스_2026.8.26.

건강

[비만 아닌데 체지방 높은 남성, 당뇨 위험 31% 높았다](#)

데이터숨_2026.8.27.

기독교 · 종교

[\[교육전도사 절벽, 지금 교회는\], 국민일보](#)

[〈상〉 교육전도사, 어디에](#) _2026.8.27.

[〈하〉 대안 찾는 교회 현장](#) _2026.8.31.

트렌드

[DM 보내려면 173시간... 슬로 SNS 앱 한 달 써보니 "문장마다 진심 담게 돼"](#)

조선일보_2026.8.31.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윤성훈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넥스트목회교육원,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②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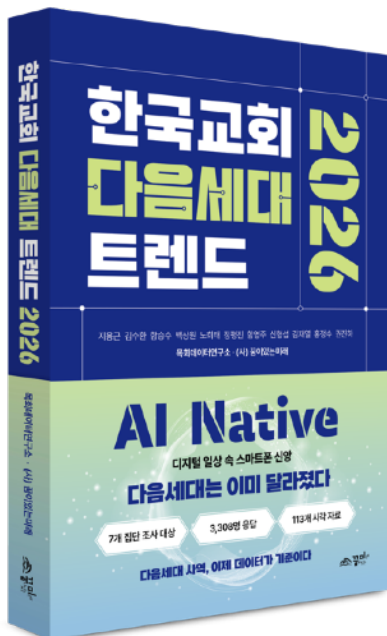


「강소교회 로드맵」 (출간일 : 2026.06.30.)

오늘날 한국 교회 다수를 차지하는 소형교회가 작지만 강력한 '강소교회'로 나아갈 실천적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소형교회 담임목사·교인 설문조사 데이터와 생생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강소교회의 12가지 목회 원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출간일 : 2026.05.20.)

((사)꿈이있는미래 공동 출간)

다음세대 사역의 10가지 주요 이슈들에 대해 국내 최초로 학생, 부모, 교사, 사역자, 담임목사 등 총 7개 집단 (총 3,308명)을 동시에 다면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책으로 다음세대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한국교회 트렌드 2026」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 출간)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책 구입 안내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후원자 배포)

- 2025년 작년 한해 동안의 매주 발간된 <넘버즈>를 모아 엮은 책으로 후원자에게만 배포하는 비매품입니다.
- 한국사회 변동상황과 교회 변화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입니다.

Addr.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기독교TV멀티미디어센터 9층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